

물류전문가 꿈 이루기 위해 도전

전 봉 규 / 한국유통티칼하이테크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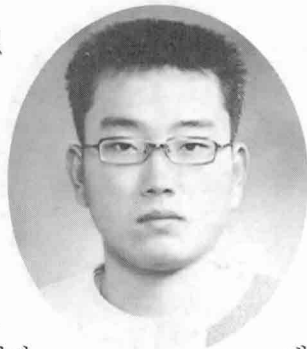
(사)한국포장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제8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에서 한국유통티칼하이테크 전봉규 씨가 1백점 만점에 96.4점을 획득, 1등으로 수료했다.

현재 전봉규 씨는 LCD 모니터 액정표시장치 편광판 제조업체인 한국유통티칼하이테크에서 생산관리과 출하Part에 소속되어 현 고객사에서 생산계획 확인, 재고관리 등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구미1대학 야간 산업경영과 1학년에 재학중이기도 하다.

전봉규 씨는 “향후 전문 물류업체에서 근무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며 “때마침 사외 포장업체 담당자분의 추천으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원인 동시에 학생이기도 한 전봉규 씨는 이번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준비하면서 주경야독해야만 대학의 방대한 과제물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과 겹치는 바람에 11주간 매주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그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습득의 열정으로 리포트 제출시 교재 내용외에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검색을 통해 교



재에 없는 사진 등을 포함시켰고 자신이 습득한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목정연하게 정리하는 열의를 보였다. 또한 주위 포장업체 담당자의 도움으로 생산현장과 설비를 실제 눈으로 보면서 난해한 내용에 대해 쉽게 접근하였고 교재에 나온 제

품 등을 업체, 대형 쇼핑몰 등에서 직접 확인해 가면서 이번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준비하였다. 전봉규 씨는 “교재의 내용을 발췌해서 제출하는 리포트 방식외에 한 매개체에 대해 개인의 생각과 응용,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Sample을 제출하여 첨부하는 것도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매주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 송부 확인에 대한 교육생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내 제출 확인 공간 및 통신교육자 전용 Tip 공유 게시판을 활성화하였으면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전봉규 씨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 교육을 통해서 물류에 필요한 지식을 하나 더 습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포장외의 물류에 필요한 지식, 자격증 공부를 충실히 하여 물류전문가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항상 배우는 자세로 실제 업무에 응용할 터

윤 정 인 / 서울우유협동조합연구소 가공품연구팀 계장

제8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에 서 서울우유협동조합연구소 가공품연구팀 윤정인 계장이 91점으로 전체 수료자 가운데 2등으로 수상했다.

“합격한 것도 기쁘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교재 하나만이라도 충실하게 보자고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 같습니다.”

현재 서울우유협동조합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윤 계장은 가공품연구팀에서 유가공품에 대한 제품 개발 및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초창기 식품산업에서 포장은 단순히 내용물을 담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현재는 포장 형태에 따라 내용물을 맞추고 하나의 포장 방법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시대”라며 “예전엔 제품 개발과정에서 포장이 등한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포장을 모르면 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어 포장교육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재가 초급자를 대상으로 포장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어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약



간 이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윤 계장은 “교재를 초, 중, 상급자 용으로 나뉘어 교육과정을 차등적으로 만든다면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그녀는 “포장협회 홈페이지에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

육란을 추가하여 인터넷을 통해 교육생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보완된다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며 “포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해 주는 곳이 포장협회를 빼곤 전무하니 체계적, 전문적으로 통신교육을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장산업은 포장을 연구하고 실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여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금광을 캐는 듯한 느낌이라는 윤 계장. 그녀는 포장산업의 매력에 대해 “똑같은 제품인데 포장 하나만으로 소비자에게 강점을 어필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보람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포장기술관리사를 통해 포장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윤 계장은 항상 배우는 자세로 관리자 교재를 바탕으로 공부를 더해 실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터

윤연화 /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4년

제8기 포장기술관리사에 90.5점을 획득한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4학년 윤연화 학생이 전체 수료자 중 3등으로 수상했다.

“패키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포장기술관리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이기에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임했기 때문에 이렇듯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짜여진 틀에 맞춘 평범한 학과보다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포장학과에 매력을 느끼고 국내 4년제 대학으로 최초로 설립된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에 입학하게 된 윤연화 학생은 현재 학부생 120여명, 대학원 8명 등의 학생들과 함께 ‘진정한 포장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포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되짚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포장기술관리사를 신청하게 윤연화 학생은 “11주라는 긴 시간 동안 학생의 신분으로 포장기술관리사 교육과 학교 수업, 학생회 활동, 취업준비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윤 학생은 남다른 열정으로 포장기술



관리사 통신교육을 준비함으로써 포장학과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제품이 포장없이 홀로 존재할수 없을 정도로 포장산업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그녀는 “앞으로 미래의 포장산업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 포장관련 업체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현재 4학년으로 포장업체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윤연화 학생은 그동안 학교에서 매학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공장견학으로 생산과정을 직접 느끼고, 시장조사로 현재 시장을 분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포장 개발을 해보면서 패키징이라는 학문에 매력을 느끼며 ‘패키징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포장기술관리사라는 타이틀이 ‘패키징 전문가’라는 꿈에 힘을 신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윤연화 학생. 그녀는 포장기술관리사로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익힌 지식을 통해 포장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